

# 제6편 사회복지

- 제1장 인 구
- 제2장 사회복지
- 제3장 사회단체
- 제4장 환경보전
- 제5장 정보통신
- 제6장 고난과 갈등을 딛고  
도약하는 포항



# 제1장 인 구

## 제1절 인구변천

인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구분된 일정 지역에 사는 인간 집단의 계수를 말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이나 이민족들까지도 함께 포함된다.

인구의 구성과 분포 그리고 그 변동, 특히 인구성장과 지리적 이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필수 요건이 되어 왔다. 최근 수세기 동안에 인류 사회는 역사 이래 가장 급격한 변동을 겪어왔다. 그러한 변동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는 인구변동, 특히 인구성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다.

급격한 인구성장과 도시화는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인간 모두가 희구하는 생활조건의 향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존속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세계 인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폭주하여 식량과 자원부족이라는 충돌계도에 진입하는 것으로 비유될 정도로 빠른 증가를 보였다. 다행스럽게도 1970년대에 들어와 제3세계 인구 대국들의 출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충돌의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아직도 이 기차는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세계 인구는 2030년에 100억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21세기 말에는 300억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1950말에는 기록적인 인구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지난 40년간의 급격한 출산력 변천의 결과로 사망률, 출산율 그리고 인구증가율이 모두 선진국 수준의 안정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바로 인구인 까닭에 지역의 인구 변동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인구 증가는 사회 경제적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적 환경에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구의 여러 현상을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인구의 분포, 밀도, 구조 등을 조사해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등의 통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이다.

해방 후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인구의 증가와 감소, 이동추세 등을 파악해 질적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포항시의 인구현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시·군 통합전의 인구

### 1) 포항시

광복 직전인 1942년 말에 3만1천2백51명으로 공식 집계됐던 인구는 점차 증가세를 보인다. 1951년 5만1백31명으로 고비로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여 1954년에 4만 5천9백49명에 불과해진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잘 설명해 준다.

광복 당시의 포항읍은 1949년 8월14일 포항부로 승격돼 영일군에서 분리됐고 다음 날 포항시로 개칭됐다. 그러나 시 승격의 감격도 잠시 1950년 6.25전쟁으로 포항은 처참한 격전지가 됐고 형산강은 동해안 일대의 적침을 가로막는 보루의 구실을 담당해야 했다. 전쟁이 끝나고 대부분의 시가지가 잿더미로 변한 폐허 위에서도 포항시민들은 실망하지 않고 도시건설에 매달리면서 성장의 잠재력을 키워나갔다.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대거 남하한데다 오천비행장에 미군이 주둔, 경제가 낙후 피폐된 상황에서도 그나마 포항은 다른 도시보다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몰려들었던 피난민들이 귀향하고 주둔했던 미군철수에 따른 주둔군 경기 위축으로 포항은 퇴보의 길로 접어들었다.

포항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인 것은 1955년 이후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포항이 1940년대의 어업도시에서 군사도시로 변모한 시기였다. 1950년대 후반 해병부대의 주둔과 경제부흥, 1962년 국제개항장 지정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군부대를 상대로 한 상업과 도입 양곡의 하역 등으로 민생이 다소 나아지면서 인구도 점차 증가세를 보여 1959년에 5만8백43명, 1961년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 (6만 51명)했고, 1968년엔 7만 명(7만1천6백80명)을 넘어섰다.

1970년 4월1일 포항제철이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유사 이래 최대의 변화와 발전을 다지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다. 이전까지만 해도 자원이 고갈돼가는 어업과 절망에 이른 염업, 빈약한 농업과 소규모의 상업에 겨우 매달려 있었던 포항은 근대 이후 영일만과 형산강 하구의 지도까지 바꿀 만큼 변화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일약 입해도시로 각광받게 된 포항은 5만~7만을 맴돌던 인구가 1973년엔 10만(108,854명), 1980년엔 20만(201,355명), 1988년 30만(301,894명)을 각각 넘어서게 됐다. 1990년대로 들어선 포항시는 다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포철과 철강공단이 들어선 1968년부터 10년간은 매년 1만5천~2만 명씩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0%선에 이르렀으나 1991년 이후 3년간 연속 2% 안팎의 증가율이 머물렀다.

이는 좁은 지역으로 인한 과밀현상이 매년 가중된 데다 몇 년간에 걸친 경기침체 등으로 철강공단 근로자들의 인력 감축이 이루어져 포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소폭 인구증가율을 보인 포항시는 영일군과 통합 전인 1994년에는 32만(327,504명)에 이르게 되었다.

## 2) 영일군

광복직후 1942년 말 36,269호, 190,608명(남 : 95,165, 여 : 95,443)으로 집계되었던 영일군의 인구는 해방직후 1946년 8월 25일 집계에 의하면 220,997명(남 : 111,648, 여 : 109,349)으로 나타났다.

1942년 당시 포항읍을 중심으로 하여 영일군에 거주한 일인들은 1,026호, 4,199명에 달하였다. 해방 직후 일인들의 대거 본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영일군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공식집계에 나타난 숫자가 도리어 늘어나고 있음은 해방 직후 해외로부터 돌아온 귀향민,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 그리고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유입된 이주민들의 인구이동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같은 영일군의 인구는 1949년 8월 15일 영일군 관할의 포항읍이 포항시로 승격 독립됨에 따라 급격히 줄어 30,806가구, 165,092명이 되었다.

그 후 6.25가 끝난 다음해인 1954년엔 3,000명가량 준 것을 제외하고는 1959년까지 한 해 평균 3천~4천 명씩 증가하다가, 1960년 갑자기 14,600명가량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5년마다 시행된 ‘전국 인구 및 주택 센서스’에 의해 1960년의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잘 조사 집계된 때문으로 보인다.

1961년부터 1967년까지 꾸준히 증가되던 인구가 1968년에서 1989년 사이에는 증가가 둔화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잦는데 이는 1968년 4월1일 대송면 지역을 중심으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른 인구감소의 결과이며, 1973년 7월 1일 대송면의 송림, 괴동, 송내, 동촌, 장흥동이 포항시로 편입되고, 1983년 2월 15일 영일읍의 대잠, 이동, 지곡, 효자동과 생지동, 오천동 일부 및 동해면의 일월동이 포항시로 편입된 결과이다.

1989년 영일군의 인구는 1950년의 수준을 밑돌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해 포항제철이 설립되면서 포항시가 한국의 대표적 기간산업 도시 즉 철강산업 도시로서 변모·발전함에 따라 포항시 외곽인 영일군 지역이 적지 않게 포항시로 편입되고, 영일군의 인구가 포항의 상공인구로 꾸준히 유입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오천, 연일, 흥해 등의 지역이 포항의 부도심지로 부상, 베드타운의 역할을 담당해오면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인구는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이 되기 직전 해인 1994년에 최종 179,703명에 도달했다.

## 3) 호적으로 보는 인구동태

## 포 항 시

구분	합계	출생	사망	혼인(쌍)	이혼(쌍)
1976	4,950	3,285	826	769	43
1977	4,953	3,301	496	698	44
1978	4,647	3,422	497	676	52
1979	5,855	4,604	488	719	44
1980	6,741	5,155	668	857	61
1981	7,202	5,643	652	855	57
1982	7,756	5,917	692	1,053	94
1983	8,250	6,221	768	1,138	123
1984	7,808	5,698	873	1,080	157
1985	7,471	5,432	895	1,007	137
1986	7,489	5,255	953	1,108	15
1987	7,409	5,210	938	1,078	183
1988	7,533	5,171	961	1,214	187
1989	8,116	5,500	1,069	1,353	194
1990	7,748	5,357	1,102	1,099	190
1991	7,735	5,385	1,110	1,062	178
1992	7,668	5,318	1,055	1,082	213
1993	7,486	5,011	1,110	1,122	243
1994	7,439	4,879	1,199	1,163	198

## 영 일 군

구분	합계	출생	사망	혼인(쌍)	이혼(쌍)
1982	10,753	5,601	2,113	2,867	172
1983	9,826	4,487	2,203	2,936	200
1984	8,382	3,488	1,943	2,962	259
1985	7,383	2,929	1,657	2,534	263
1986	7,299	2,689	1,739	2,607	264
1987	7,033	2,558	1,701	2,498	276
1988	7,292	2,618	1,778	2,580	316
1989	7,392	2,712	1,789	2,571	320
1990	7,235	2,774	1,619	2,494	348
1991	7,526	2,943	1,610	2,632	341
1992	7,646	3,226	1,533	2,564	323
1993	7,622	3,165	1,578	2,471	408
1994	7,263	3,032	1,523	2,294	414

## 2. 포항시(통합 포항시)

어업, 군사, 철강, 과학도시로 반세기 역사를 거쳐 온 포항은 1995년 1월 1일 시대적 요구에 의해 지리적 모체인 영일군과 통합, 경북 최대의 도시로 부상했다.

통합 전 이미 50만(1994년 507,207명)을 넘어선 인구는 1995년 510,867명, 1996년 512,299명, 1997년 512,953명, 1998년 513,110명으로 소폭이나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오고 있었다.

통합 포항시

구분	출생	사망	혼인(쌍)	이혼(쌍)
1995	7,793	2,707	3,554	634
1996	7,551	2,719	3,855	789
1997	7,068	2,835	3,544	897

## 3. 인구 이동상의 특성

### 1)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 이동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이동성은 극심한 양상을 띠는 것이 보편화된 현상이지만 포항 지역의 인구이동 변화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은 포항제철의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1976년 포항시의 상주인구는 151,891명인데 비해 1977년 한해동안 47,391명이 전입하고 38,756명이 전출했으며 그 밖의 증가 9,621명이 합산돼 170,138명에 이르렀다. 따라서 같은 해 전출입이 중복되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1977년 한해 동안 주민 25.52%가 전출했고 1977년 말 주민 27.85%가 전입자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유동인구(주민등록상 표시되지 않은 인구)의 전출입과 시내 이주자를 고려한다면 엄청난 이동이 아닐 수 없다.

산업화를 거듭해온 포항시의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웃돌았던 것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었던 영일군 지역은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를 앞서 왔는데 이는 산업화 이후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가속화라는 전국적인 상황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통합 이후 포항시의 전출입 상황을 살펴보면 시도 내 인구이동에 있어서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를 상회하지만 시도 간 이동에 있어서는 전출 초과 현상을 보이는 것이 변화된 상황이다.

## 2) 읍, 면, 동별 세대 및 인구 현황

영일군의 각 읍면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뚜렷한 쇠퇴와 번성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해방을 전후해 인구수의 우위를 다뤘던 구룡포의 경우 1960년대 2만 명(1962년 26,261명), 1970년대는 3만 명(1974년 33,614명)을 넘어서며 명실 공히 군 최대 인구를 자랑했지만 1980년대 들어서는 격심한 감소세를 보이며 통합 전인 1994년에는 17,541명, 1998년 12월말 현재는 15,512명으로 전성기 때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대 인구감소 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1970년 때까지만 해도 1만 명 이상의 인구분포를 보였던 기계, 죽장, 청하 등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농어촌지역들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구의 전출이 늘어나 극심한 감소세를 보이며 1만 명 이하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포철 설립과 함께 빠른 인구증가를 보인 대표적인 곳 중의 하나가 오천이었다. 1960년대 1만 명을 겨우 넘어섰던 오천은 1980년대 들어 2만 명(1988년 25,957명)을 뛰어넘는 등 급증을 거듭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3만 명을 넘기며 1998년 말 현재 38,918명에 달하는 포항시 전체 읍면동 중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다. 오천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인구증가를 보여 온 곳은 연일, 흥해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포항의 부도 심지로 부상하면서 배드타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 같은 현상은 포항지역 도심권이 심각한 교통체중과 환경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집값 등이 올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탈도시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지역의 동별 인구 증감 또한 도시 발달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여 왔다. 시 승격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구 밀집동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곳들이었다.

대흥동을 비롯 죽도2동, 대신동, 용흥1·2동 등은 최대 인구밀집지였다. 그러나 포항 제철 건설이후 1970년대부터는 해도, 송도동 등이 인구밀집지로 부상했으며 1980년대까지 포철주택단지가 들어선 제철동 또한 새로운 주거지로서 인구증가가 급속도로 이뤄졌다. 도시의 발전에 따라 1980,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생활환경이 비교적 쾌적하고 분양가가 싼 외곽지아파트 신축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두호, 장량동 등지가 신주거지로 각광,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보였고, 제철주택단지인 지곡동 등에도 뚜렷한 인구증가 현상을 보여 주었다. 이에 반해 상가밀집지로 발전해온 시내 중심가의 중앙, 대신, 학산, 덕수동은 주거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해 인구가 해마다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빚어낸다. 포항시가 영일군과 통합될 무렵인 1990년대 중반 2만 명 이상의 포항시 과대동은 송도, 상대1, 해도2, 죽도2, 용흥1, 두호, 우창동이었으며, 시군 통합 이후 현재까지 동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은 용흥동(1998년 12월 현재 33,694명)으로 이곳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급격히 늘어난 때문이었다.



### 4. 2000년 이후의 인구 현황

남구 인구 및 세대현황

(2009. 10. 현재)

행정기관	인 구 수			구 성 비			성 비	세대수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합 계	252,634	130,213	122,421	100.00	51.54	48.46	106.36	95,799	2.64
구룡포읍	10,861	5,525	5,336	4.30	2.19	2.11	103.54	5,058	2.15
연일읍	34,159	17,596	16,563	13.52	6.97	6.56	106.24	11,381	3.00
오천읍	44,763	23,497	21,266	17.72	9.30	8.42	110.49	16,836	2.66
대송면	5,782	3,043	2,739	2.29	1.20	1.08	111.10	2,389	2.42
동해면	12,580	6,402	6,178	4.98	2.53	2.45	103.63	4,780	2.63
장기면	5,567	2,737	2,830	2.20	1.08	1.12	96.71	2,648	2.10
대보면	2,654	1,293	1,361	1.05	0.51	0.54	95.00	1,236	2.15
상대동	30,115	15,483	14,632	11.92	6.13	5.79	105.82	12,285	2.45
해도동	25,347	12,981	12,366	10.03	5.14	4.89	104.97	11,006	2.30
송도동	19,264	9,899	9,365	7.63	3.92	3.71	105.70	7,894	2.44
청림동	7,656	4,070	3,586	3.03	1.61	1.42	113.50	3,096	2.47
제철동	3,727	2,046	1,681	1.48	0.81	0.67	121.71	1,585	2.35
효곡동	29,692	15,404	14,288	11.75	6.10	5.66	107.81	9,041	3.28
대이동	20,467	10,237	10,230	8.10	4.05	4.05	100.07	6,564	3.12

북구 인구 및 세대현황

(2009. 10. 현재)

행정기관	인 구 수			구 성 비			성 비	세대수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지역	남자	여자			
합 계	256,645	128,733	127,912	100.00	50.16	49.84	100.64	94,572	2.71
흥해읍	36,952	18,625	18,327	14.40	7.26	7.14	101.63	14,067	2.63
신광면	3,367	1,704	1,663	1.31	0.66	0.65	102.47	1,595	2.11
청하면	5,929	2,901	3,028	2.31	1.13	1.18	95.81	2,766	2.14
송라면	3,163	1,524	1,639	1.23	0.59	0.64	92.98	1,479	2.14
기계면	5,745	2,783	2,962	2.24	1.08	1.15	93.96	2,566	2.24
죽장면	2,333	1,151	1,182	0.91	0.45	0.46	97.38	1,199	1.95
죽장면 상옥출장소	637	316	321	0.25	0.12	0.13	98.44	285	2.24
기북면	1,386	692	694	0.54	0.27	0.27	99.71	677	2.05
중앙동	20,458	10,134	10,324	7.97	3.95	4.02	98.16	8,912	2.30
양학동	21,377	10,790	10,587	8.33	4.20	4.13	101.92	7,073	3.02
죽도동	23,237	11,693	11,544	9.05	4.56	4.50	101.29	9,901	2.35
웅흥동	27,767	14,084	13,683	10.82	5.49	5.33	102.93	9,650	2.88
우창동	28,089	13,910	14,179	10.94	5.42	5.52	98.10	9,624	2.92
두호동	27,620	13,910	13,710	10.76	5.42	5.34	101.46	8,809	3.14
장량동	36,285	18,380	17,905	14.14	7.16	6.98	102.65	11,845	3.06
환여동	12,300	6,136	6,164	4.79	2.39	2.40	99.55	4,124	2.98
남북구 총 계	509,279	258,946	250,333	100.00	50.85	49.15	103.44	190,371	2.68

포항시 인구현황

(2009. 10. 31 현재)

년월	인 구 수			한 국 인			외 국 인			세대수	세대당 인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00.12	517,250	262,705	254,545	515,977	261,872	254,105	1,273	833	440	163,532	3.16
01.12	516,576	262,199	254,377	515,039	261,245	253,794	1,537	954	583	165,648	3.11
02.12	513,424	260,825	252,599	511,667	259,751	251,916	1,757	1,074	683	167,754	3.05
03.12	510,414	259,349	251,065	508,850	258,420	250,430	1,564	929	635	170,098	2.99
04.12	508,937	258,761	250,176	507,129	257,688	249,441	1,808	1,073	735	172,929	2.93
05.12	509,148	259,060	250,088	507,052	257,849	249,203	2,096	1,211	885	176,676	2.87
06.12	507,674	258,701	248,973	505,008	257,090	247,918	2,666	1,611	1,055	179,593	2.81
07.12	508,684	259,226	249,458	505,555	257,385	248,170	3,129	1,841	1,288	183,065	2.76
08.12	511,805	260,652	251,153	508,119	258,441	249,678	3,686	2,211	1,475	187,079	2.75
09.10	513,236	261,275	251,961	509,279	258,946	250,333	3,957	2,329	1,628	190,371	2.68

연령별(만) 인구현황(기관별)

(2009. 10 현재)

연 령	포항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인구수	구성비	성비	인구수	구성비	성비	인구수	구성비	성비	
합 계	계	509,279	100.00	103.44	252,634	100.00	106.36	256,645	100.00	100.64
	남	258,946	100.00		130,213	100.00		128,733	100.00	
	여	250,333	100.00		122,421	100.00		127,912	100.00	
0세 - 5세	계	25,886	5.08	109.42	13,136	5.20	111.02	12,750	4.97	107.79
	남	13,525	5.22		6,911	5.31		6,614	5.14	
	여	12,361	4.94		6,225	5.08		6,136	4.80	
6세 - 10세	계	28,371	5.57	112.07	14,076	5.57	111.80	14,295	5.57	112.34
	남	14,993	5.79		7,430	5.71		7,563	5.87	
	여	13,378	5.34		6,646	5.43		6,732	5.26	
11세 - 15세	계	36,366	7.14	117.54	17,571	6.96	117.81	18,795	7.32	117.28
	남	19,649	7.59		9,504	7.30		10,145	7.88	
	여	16,717	6.68		8,067	6.59		8,650	6.76	
16세 - 20세	계	37,133	7.29	128.34	17,620	6.97	124.80	19,513	7.60	131.64
	남	20,871	8.06		9,782	7.51		11,089	8.61	
	여	16,262	6.50		7,838	6.40		8,424	6.59	
21세 - 25세	계	32,267	6.34	127.63	16,240	6.43	130.00	16,027	6.24	125.29
	남	18,092	6.99		9,179	7.05		8,913	6.92	
	여	14,175	5.66		7,061	5.77		7,114	5.56	
26세 - 30세	계	37,611	7.39	111.24	19,974	7.91	114.96	17,637	6.87	107.18
	남	19,806	7.65		10,682	8.20		9,124	7.09	
	여	17,805	7.11		9,292	7.59		8,513	6.66	

연 령	포항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인구수	구성비	성비	인구수	구성비	성비	인구수	구성비	성비	
31세 - 35세	계	35,299	6.93	105.79	18,266	7.23	110.44	17,033	6.64	101.03
	남	18,146	7.01		9,586	7.36		8,560	6.65	
	여	17,153	6.85		8,680	7.09		8,473	6.62	
36세 - 40세	계	43,276	8.50	99.87	21,719	8.60	105.63	21,557	8.40	94.38
	남	21,624	8.35		11,157	8.57		10,467	8.13	
	여	21,652	8.65		10,562	8.63		11,090	8.67	
41세 - 45세	계	44,711	8.78	100.79	22,280	8.82	107.35	22,431	8.74	94.68
	남	22,444	8.67		11,535	8.86		10,909	8.47	
	여	22,267	8.89		10,745	8.78		11,522	9.01	
46세 - 50세	계	50,095	9.84	99.07	24,256	9.60	102.74	25,839	10.07	95.74
	남	24,930	9.63		12,292	9.44		12,638	9.82	
	여	25,165	10.05		11,964	9.77		13,201	10.32	
51세 - 55세	계	43,170	8.48	103.15	21,620	8.56	104.43	21,550	8.40	101.89
	남	21,920	8.47		11,044	8.48		10,876	8.45	
	여	21,250	8.49		10,576	8.64		10,674	8.34	
56세 - 60세	계	29,834	5.86	109.74	15,059	5.96	111.12	14,775	5.76	108.36
	남	15,610	6.03		7,926	6.09		7,684	5.97	
	여	14,224	5.68		7,133	5.83		7,091	5.54	
61세 - 65세	계	19,806	3.89	101.85	9,834	3.89	106.51	9,972	3.89	97.47
	남	9,994	3.86		5,072	3.90		4,922	3.82	
	여	9,812	3.92		4,762	3.89		5,050	3.95	
66세 - 70세	계	18,133	3.56	84.26	8,591	3.40	89.27	9,542	3.72	79.97
	남	8,292	3.20		4,052	3.11		4,240	3.29	
	여	9,841	3.93		4,539	3.71		5,302	4.15	
71세 - 75세	계	12,451	2.44	64.54	5,683	2.25	64.39	6,768	2.64	64.67
	남	4,884	1.89		2,226	1.71		2,658	2.06	
	여	7,567	3.02		3,457	2.82		4,110	3.21	
76세 - 80세	계	7,863	1.54	46.56	3,531	1.40	45.61	4,332	1.69	47.35
	남	2,498	0.96		1,106	0.85		1,392	1.08	
	여	5,365	2.14		2,425	1.98		2,940	2.30	
81세 - 85세	계	4,369	0.86	34.31	1,933	0.77	32.85	2,436	0.95	35.48
	남	1,116	0.43		478	0.37		638	0.50	
	여	3,253	1.30		1,455	1.19		1,798	1.41	
86세 - 90세	계	2,008	0.39	28.39	931	0.37	28.59	1,077	0.42	28.21
	남	444	0.17		207	0.16		237	0.18	
	여	1,564	0.62		724	0.59		840	0.66	
91세 - 95세	계	525	0.10	23.24	259	0.10	17.73	266	0.10	29.13
	남	99	0.04		39	0.03		60	0.05	
	여	426	0.17		220	0.18		206	0.16	

514 제6편 사회복지

연령		포항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인구수	구성비	성비	인구수	구성비	성비	인구수	구성비	성비
96세 - 100세	계	93	0.02	8.14	49	0.02	8.89	44	0.02	7.32
	남	7	0.00		4	0.00		3	0.00	
	여	86	0.03		45	0.04		41	0.03	
101세 - 105세	계	10	0.00	25.00	5	0.00	25.00	5	0.00	25.00
	남	2	0.00		1	0.00		1	0.00	
	여	8	0.00		4	0.00		4	0.00	
106세 - 109세	계	1	0.00	0.00	1	0.00	0.00	0	0.00	0.00
	남	0	0.00		0	0.00		0	0.00	
	여	1	0.00		1	0.00		0	0.00	
110세 이상	계	1	0.00	0.00	0	0.00	0.00	1	0.00	0.00
	남	0	0.00		0	0.00		0	0.00	
	여	1	0.00		0	0.00		1	0.00	

연도별 인구추이

년도	세대수	인구수(명)			인구증감률 (%)	인구밀도 (명/km)
		계	남	여		
1994	94,436	327,504	166,140	161,364	1.51	6,884
1995	150,762	510,867	259,142	251,725	통합(55.99)	453.52
1996	153,725	512,299	260,085	252,214	0.28	454.75
1997	156,245	512,953	260,577	252,376	0.13	455.31
1998	157,631	513,110	260,700	252,410	0.03	455.19
1999	160,059	514,523	261,402	253,121	0.27	456.44
2000	163,532	517,250	262,705	254,545	0.53	458.85
2001	165,648	516,576	262,199	254,377	-0.13	458.11
2002	167,754	513,424	260,825	252,599	-0.16	455.29
2003	170,098	510,414	259,349	251,065	-0.58	452.61
2004	172,929	508,937	258,761	250,176	-0.29	449.69
2005	176,676	509,148	259,060	250,088	0.04	449.63
2006	179,593	507,674	258,701	248,973	-0.29	447.94
2007	183,065	508,684	259,226	249,458	-0.19	448.00
2008	187,079	511,805	260,651	251,154	0.61	

※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이며 외국인포함

읍면동별 인구 및 가구 현황

(2008. 12. 31현재)

구 분	세대수	한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87,079	508,119	258,441	249,678	3,686	2,210	1,476
구 룡 포 읍	5,091	11,232	5,721	5,511	292	228	64
연 일 읍	11,190	34,083	17,555	16,528	174	98	76
오 천 읍	16,080	43,648	22,876	20,772	203	81	122
대 송 면	2,459	6,040	3,187	2,853	323	282	41
동 해 면	4,841	13,008	6,620	6,388	66	25	41
장 기 면	2,632	5,699	2,794	2,905	96	52	44
대 보 면	1,227	2,665	1,317	1,348	27	15	12
상 대 1 동	7,528	18,982	9,752	9,230	95	34	61
상 대 2 동	4,725	11,778	6,054	5,724	26	4	22
해 도 1 동	5,164	12,408	6,217	6,191	45	14	31
해 도 2 동	5,762	13,434	6,972	6,462	58	18	40
송 도 동	7,857	19,537	10,020	9,517	81	30	51
청 림 동	3,209	8,038	4,297	3,741	31	9	22
제 철 동	1,540	3,631	1,998	1,633	216	210	6
효 곡 동	8,881	29,332	15,276	14,056	306	202	104
대 이 동	6,402	20,256	10,099	10,157	98	56	42

구 분	세대수	한국인			외국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87,079	508,119	258,441	249,678	3,686	2,210	1,476
흥 해 읍	13,813	36,713	18,478	18,235	567	326	241
신 광 면	1,558	3,410	1,735	1,675	33	15	18
청 하 면	2,728	6,089	3,005	3,084	66	52	14
송 라 면	1,499	3,250	1,557	1,693	71	62	9
기 계 면	2,569	5,894	2,884	3,010	70	44	26
죽 장 면	1,459	2,974	1,479	1,495	22	1	21
기 북 면	676	1,417	707	710	12	1	11
중 양 동	3,336	6,730	3,318	3,412	53	28	25
학 산 동	5,700	14,402	7,171	7,231	59	34	25
양 학 동	7,112	21,770	10,998	10,772	73	31	42
죽 도 1 동	1,840	4,144	2,082	2,062	34	12	22
죽 도 2 동	8,080	19,695	9,908	9,787	77	32	45
웅 흥 동	9,655	28,192	14,277	13,915	72	24	48
우 창 동	9,114	26,863	13,337	13,526	95	34	61
두 호 동	8,780	27,919	14,054	13,865	56	31	25
장 량 동	10,467	32,537	16,503	16,034	142	103	39
환 여 동	4,105	12,349	6,193	6,156	47	22	25

## 5. 포항시 인구 변화와 추이

인구 변동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회 변동의 근본 원인이었다. 인구의 이동은 정치, 사회, 문화적 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변화의 양상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들과 어우러져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 내고 있다. 포항의 인구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인구의 이동과 인구의 자연증감이 함께 만들어 내는 인구 구조의 변동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인구이동(人口移動)이란 일반적으로 두 지역 사이를 사람들이 진출 또는 전입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구이동은 출생이나 사망과는 달리 한 사람에게 일생동안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현거주지에서의 배출 압력과 여러 다른 목표지로부터의 흡인력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진출지와 전입지 간에 나타나는 여러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여건의 차이가 인구이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동기이지만 실제적인 이동여부는 이동의 주체자인 이동인구의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인구이동은 출산력이나 사망력과 함께 한 지역의 인구 성장과정이나 인구의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은 해당지역에 각종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인구이동은 지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적응과정, 발전과정, 선택적 과정으로 분류하여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인구이동은 적응과정(adjustment process)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택가격, 위락, 교통 등 제반 환경조건이 훨씬 더 좋은, 즉 더 바람직한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둘째 인구이동은 발전과정(development process)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욱 유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교육시설이 더 좋다든가, 또는 다른 사회적·위락적 면에서 자기의 욕구를 더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동하는 것이다. 즉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경우 직접적으로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단계로 거쳐 나타나기도 한다. 즉 농촌 → 소도시 → 대도시로의 이동이나 면지역 → 읍지역 → 그 지역 내의 도시 → 다른 지역의 도시 → 대도시로의 이동이 바로 단계적 이동이다. 이렇게 발전과정으로의 이동은 경제발전이 인구이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이동은 선택적 과정(selective process)이라고 볼 수 있다. 출생률이나 사망률의 변이와 마찬가지로 인구이동은 연령과 성별 및 교육,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동하려는 의사결정과 목표지의 선택은 성별이나 연령, 혹은 교육정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 1) 인구 이동의 원인

일반적으로 기원지에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요인들을 기리켜 ‘배출요인(push factor)’이라고 하며 그 반대로 목표지에서 사람들을 끄는 힘을 ‘흡인요인(pull factor)’이라고 한다. 배출요인으로는 농촌지역의 빈곤, 낮은 임금, 고용기회의 감소, 교육·문화·보건시설 등의 부재, 종교적·정치적·인종적 억압, 그리고 가뭄·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흡인요인으로는 저렴한 농지가격, 고용기회의 증대, 높은 임금수준, 학교·병원·위락시설 등 각종 사회시설의 확충, 그리고 최근 선진사회에서 중요한 흡인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후와 경관이 좋은 환경적 자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주어진 지역의 조건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배출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역으로 어떤 곳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릴 때에는 흡인요인이 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의 똑같은 여건이 한 때에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하다가 다른 때에는 배출요인이 되는 것처럼 배출요인과 흡인요인을 완전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사회변동의 결과로서 그 여건이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바뀔 때 흔히 나타난다.

어떠한 요인들이 사람들의 이동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조건 이외에 주어진 사회의 제도, 개인의 가치관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즉 인구이동은 심리적·경제적·문화적인 여러 차원의 문제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하게 된다.

## 2) 인구이동의 유형

인구이동은 이주기간이나 장소, 거리, 이동 동기나 의도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포항에서의 인구이동은 국내이동의 범주 속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과 도시 내의 이동, 도시간의 이동 등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다.

### (1)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오늘날 국내이동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촌에서부터 도시로의 이동이다. 이 이동은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인구압이

높고 농경지가 부족하며 고용기회가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공업과 서비스업의 발달로 고용기회가 많은 도시를 찾아 이동해 오는 주로 경제적인 동기가 그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농촌에 비해 각종 공공시설이 보급되어 있으며, 도시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농촌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우선 상업적 농업이 발달되고 농업의 기계화와 더불어 농업노동력의 과잉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동시에 도시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고용기회가 계속 창출되므로 농촌에서 배출되는 과잉인구를 도시에서 흡인할 수 있게 된다. 즉 도시는 농촌의 인구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농촌의 실업자 들은 도시로 이동하여 노동력 인구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포항에서 경험하고 있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현상은 전국적인 이동 패턴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2) 도시 내 이동

선진국의 경우 대도시의 혼잡과 공해, 소음 등을 피하기 위하여 도심으로부터 벗어나 통근할 수 있는 범위의 도시 외곽지와 근교로 이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도심지로부터 외곽지로의 인구 이동현상은 지가의 상승, 교통망의 발달,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 정도와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다. 포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도시 규모가 외곽으로 확장되어 도심에서 농촌지역이나 비도시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 지역이 다른 여러 선택 가능한 지역에 비해 갖고 있는 매력도의 인지수준에 따라 이동하게 된다. 또한 가구주가 주거지를 이동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을 때 선택 가능한 다른 여러 지역들 중에서 주거지로서의 장소와 효용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이동한다는 것이다.

## (3) 지역간의 인구이동

지역간의 인구이동(interregional migration)은 크게 두 가지 유형 즉 유도형 이주(colonizing migration), 선택형 이주(population drifts)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포항 지역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으나 유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약하고, 선택형 쪽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유도형 이주는 자발적 유도이주와 계획적 유도이주가 있으며, 선택형 이주는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곳이든지 이러한 유형의 이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불균등한 인구분포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전입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기후 조건이 좋은 곳이



라든가, 최근 급속도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나, 시장과의 접근도가 유리한 지역 등, 초기의 입지우위성으로 인해 그 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는 지역이 흡인력이 강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 3) 인구이동의 영향

인구이동은 흔히 지역 간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일어나지만 인구 이동으로 인해 기원지와 목표지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된다.

인구이동은 각 지역의 인구학적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오늘날 급속한 경제발전은 도시화·근대화를 진전시켜 인구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형성과 변화과정에서 인구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구 이동은 선택적인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구이동에 따른 경과는 인구학적·사회적·경제적·지리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1) 인구학적 측면에서의 영향

첫째 인구이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구수에 영향을 미친다. 전입은 목표지의 인구수를 증가시키는 반면에 기원지의 인구수를 감소시키게 된다.

둘째 인구이동의 인구학적 영향은 기원지와 목표지 두 지역의 인구 잠재력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인구이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이동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기원지와 목표지의 현존하는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이동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목표지의 출생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사망률은 낮아지게 된다. 또한 젊은 부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인구이동의 흐름은 기원지의 출산력 수준을 낮추는 반면 목표지의 인구성장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고 미혼인 젊은 연령층의 이동이 많은 경우 기원지의 성비율이 변화하게 되며, 이에 따라 혼인율도 달라지게 된다. 즉 이주자가 주로 남성일 경우 목표지의 혼인율은 증가되지만, 기원지의 혼인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혼인율의 변화는 더 나아가 출생률과 인구 성장 잠재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에 젊은 연령층이 전출해 나간 기원지는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아지므로 사망률은 증가하게 되며 출생률의 저하로 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셋째 이동에 따른 인구학적 영향은 기원지와 목표지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이동의 흐름은 주로 젊은 연령층이 대부분이며, 기원지로부터의 젊은 연령층의 전출은 그 지역의 생산 연령층의 수와 그 비율은 감소시키게 되고 유년층과

노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목표지에서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인구이동은 또한 기원지와 목표지의 성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결과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초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이동은 즉각적으로 인구성장과 변화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후 계속적으로 연령 및 성별구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며 그 지역의 자연적 증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젊은 연령층의 경제활동 인구로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목표지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높아지고 기원지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낮아진다. 평균적으로 한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이 40%를 나타내는데 비해 전체 이주자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비율은 최소 50%부터 심지어 100%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목표지로의 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목표지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달려있다. 토지와 자본이 부족하고 만성적인 노동력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의 이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주해 온 사람들은 훨씬 더 싼 임금수준에서도 기꺼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워낙 희소한 일자리에 대한 경쟁은 더 치열하게 된다.

그리고 실업과 잠재실업이 만연된 지역에서의 전출 현상은 농업과 그밖에 다른 산업부문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과잉노동력의 수를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경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전출지의 수가 많을수록 남아있는 사람들의 1인당 토지면적과 생산시설은 증가되므로 점차 생산성이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임금수준도 올라가게 된다.

### (3) 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

인구이동의 사회적 영향은 목표지에서 이주자 적응문제에 관한 것이다. 특히 지역적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예 :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경우 그 이주자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문제가 된다. 만약 이주자가 목표지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구 이동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 즉 정착단계 → 적응단계 → 문화변용단계 → 동화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동의 첫 단계인 ‘정착’이란 이주자가 그의 필요한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과 거주지를 찾았을 때를 말한다. 흔히 이주자들은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와 집을 마련하면 일단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동의 두 번째 단계는 ‘적응’이다. 이주하기 이전의 문화를 단절하고 목표지의 새로운 가치·윤리·행태 등 생활양식을 채택, 그 지역 주민과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적응단계이다.

적응 다음의 단계는 ‘문화변용’ 단계이다. 즉 이주자가 새로운 사회의 문화·가치·태도·생활양식 행위가 내면화되어 그의 일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이 완전히 이주한 지역의 것으로 대체되는 단계이다.

마지막 단계인 ‘동화’ 단계는 가장 어려운 단계에 해당되는데, 이주자가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흡수되어 그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 그 지역의 본래 주민들과 하나로 완전히 융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화과정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다. 특히 유동성 있는 사회구조나 정치적 평등성과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에서는 이주자가 쉽게 동화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언어·종교·문화전통의 유사성도 동화과정을 촉진시키며, 그 반대로 상이한 문화적 가치와 행위는 동화과정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오늘날의 인구이동은 또한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이주자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열망하면서 이동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승될 만한 기회가 많은 목표지로 이동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는 향상될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과 같이 직업을 전환하게 될 경우 사회적 변동은 쉽게 일어난다.

#### 4) 포항시 인구의 희망적인 변화

2008년 9월 말 포항시 인구는 510,216명으로 2007년 보다 0.5% 늘어났다. 이 가운데 포항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은 506,901명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포항시로 등록된 외국인인 3,315명이었다.

2004년 이후 보합세를 보이던 포항시 인구가 9월 말 현재 51만명으로 이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목되는 것은 포항시의 인구 증가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데 있다.

포항시 인구는 2008년 3월 이후 월평균 350명씩 증가해 최근 준공한 POSCO 수소연료전지 공장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인 인구증가가 시작됐다.

이는 제4국가산업단지 조성 과 분양 완료와 영일만항 건설을 비롯해 영일만항 배후 일반산업단지의 본격적인 개발,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민선 4기 출범 이후 2조 9천억 가량의 투자 유치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2009년 시 승격 60년을 맞는 포항시는 1949년 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가 5만명이 채 못 되었다.

6.25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1950년 해병대의 주둔으로 군사도시가 되었고 1962년 포항항이 국제항으로 지정되어 수입양곡하역 등으로 인구가 점차 증가세를 보여 1955년 4만6천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1968년엔 7만명(71,680명)을 넘어섰다.

또한 POSCO와 철강공단이 들어선 1968년부터 10년간 매년 1~2만명 정도 급격한 인구유입이 시작되면서 1973년에는 10만명(108,854명), 1980년 20만명, 1988년에는 30만명(301,894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0%선에 이를 만큼 크게 증가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인구증가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1991년 이후 3년간 연속 2% 안팎의 증가율에 머물러 1994년 32만명(327,504명) 이던 인구가 1995년 1월 1일 영일군과 통합되면서 510,867명으로 늘어나 경북 최대의 도시로 부상하였다.

그 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517,250명으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나, 이를 기점으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6년 507,674명까지 인구가 감소하였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기업유치의 노력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공장설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 2006년 입주 완료한 현대중공업 조선블럭 공장의 본격가동을 시작으로 점차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지난해 508,684명으로 1,000여명 증가하였다.

시 승격 60년을 맞이하는 2009년이면 영일만항의 컨테이너부두 개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동해 물류중심 도시로 발돋움을 하게 되며 2010년이면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내의 MOU체결 기업들이 입주와 함께 POSCO내의 신제강공장 가동하게 되며, 이후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 등이 조성 완료되고 동빈내항 복원과 함께 송도·해도 지역의 도심개발과 두호동 지역 마리나 시설, 영일만 대교 및 인공섬 및 호미곶 관광단지 조성 등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머지않은 미래 포항시는 환동해 중심 광역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 참고문헌

- 포항시사편찬위원회, 《포항시사》, 1987.  
 영일군사편찬위원회, 《영일군사》, 1990.  
 포항시사편찬위원회, 《浦項市史》下, 1999.  
 포항시, 《시정백서》2007~2008, 2009